



고린도전,후서 성경 공부 노트

서안출판

<https://www.westpeace33.net>

고린도전,후서 성경 공부 노트

(이 글은 서안교회 수요, 일요 성경 공부 내용을 정리한 노트입니다)

서안출판/ <https://www.westpeace33.net>

<https://blog.naver.com/shindk55>

shindk55@gmail.com

고린도전,후서 성경 공부 노트

2023. 12. 27 - 2024. 4. 17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베드로후서 3:18]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 고전1:26-29/ 20231227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비천한데서 기념하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 136:23]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가 마음에 있다. *[엡1:13, 4:30]

부르심의 대상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다.

비천(卑賤, 鄙淺)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비천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일이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

한나는 거름더미에서*[삼상2:8], 기브온 거민들은*[수9:5] 곶팥이 난 떡과 같은 신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수로보니게 여인*[막7:26]은 비천하게 여기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곳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것들을 부르심은 그들에게만 유효한 하나님의 유일한 위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십자가를 증거하려 하심이다.

오늘날 이 비천한 존재들은 세상 종교인에게 여전히 거리끼는 존재이고 세상의 지혜로 여전히 미련한 존재로 취급되므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산다.

그리고 비천한 것으로 취급을 받아도 될 만한 자신에 대한 분별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표적을 더욱 뚜렷이 한다. ㄴ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세계는 성령을 통하여만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일4:10] 사랑을 입은 자들의 눈을 밝혀*[요일4:13]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를 보여준다.

이 세계는 사람의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이다.*[사64:4]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병으로 인하여 삶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타난 반응과 열매가 있다.*[막5:25-34]

그것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는 소망이고 그 소망을 따라 간 결과, 혈루 근원이 말라 버린 줄을 깨닫게 된 일이다.

여인이 경험한 일은 끊임없는 유출되는 피의 저주와 그 근원이 치유되는 이적(異蹟)이다.

여인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끝이 난 그 저주의 끝에서 새 소망과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시103:2-5]

혈루의 근원을 말라버린 하나님, 홍해와 요단에 흐르는 사망의 세력을 말라버리고 마른 땅을 드러내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의미를 같이한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구원의 세계는 오직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세계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세계이다. ☺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은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없게 되면, 그 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연고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성령 대신 다른 세력이 세워져서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상태를 설명하는 말씀이리라.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에 이끌리는 신령한 삶이 보장된 자들이다.*[롬8:14, 고전3:21-23]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나라인 교회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다.

성도 중에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와 성장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 변화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고,*[엡4:22-24]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는 일이다.*[벧후3:18]

바울은 교회 안의 시기와 분쟁을 지적할 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우월함을 나타내려는 세력을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지도자나 전도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도자의 것이 아니다.

만일 형제 자매들이 ‘바울 교회’라는 말을 한다면 바울은 심히 민망해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과 성전의 연결체*[엡2:21]이고, 성도가 보호함을 받는 곳이고, 성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고전3:21-23]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찌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비밀의 세계는 깨닫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의 선물이다. *[골2:2-3]

그리고 이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忠誠, kjv.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a man be found faithful)이다.

이는 유월절의 신비한 구원의 세계를 무교절의 규례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을 기억케 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의 마음에 마땅히 세워져야 할 것은 순전함과 진실함
의 누룩 섞이지 않은 말씀이다. *[고전5:8]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쟁과 범죄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교만으로
인한 것임을 바울은 지적한다. *[6절]

이는 구원의 은혜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에 세워지지 못한 결과이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15절]는 말씀에서,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는 많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낳은 자녀를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는 자는
많지 않다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가르치려는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9-14절] 복음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께서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갔고, 이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고한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각(先覺)의 모습을 본다. ☞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
치 아니하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갈6:1] 사망
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것을 보거든 간구하되 사망에 이르는 죄 범하는
것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아님*[요일5:16]을 말씀에 지시하고 있다.

소 도적에 대한 형벌이 양 도적에 대한 형벌 보다 중하고, *[출22:1] 약혼한 처녀가
성내에서 욕을 보는 일과 성밖에서 욕을 보는 일에 대한 형벌이 다르다.*[신22:23-
27]

율법에는 표면적 행위에 관한 규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질서, 요구를 포함
하고 있다.

약혼한 처녀는 한 남자에게 속한 여자이고, 형제라 일컫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움
겨진 신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형제라 일컫는 자와 형제가 아닌 자의 육체와 정욕과 더러움은 동일하지만, 형제
라 일컫는 자의 범죄와 형제가 아닌 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은 다르다.

약혼한 처녀가 성내에서 욕을 당하면 강간이 아니라 통간이다.
이곳은 당하는 자가 정혼한 사실을 외치면 강폭한 세력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형제라 일컫는 자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의 신분이다.

그러나 그 범죄의 형태가 스스로 신분을 포기하는, 꺾이는 자의 모습이라면 마땅히 교회는 물리쳐야 할 것이다.

교회는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제하는 곳이다.

이 누룩은 음행과 탐람과 우상 숭배와 후욕과 술 취함과 토색하는 자를 만든다. ☞

몸은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여니라/ 고전6:13/ 20240114

식물은 배를 위하여 배는 식물을 위하여나 하나님이 이것 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여시니라

몸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지체이다. *[엡1:23, 엡5:23]

몸이 주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모습은 음란을 위하여지 않는 삶이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약4:4]

음란은 두 주인*[마6:24], 두 남편*[롬7:3]을 섬기려는 마음이고,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누리려는 종교 활동인데, 하나님은 이를 원수로 여기신다.

이 음란은 모든 인생의 중심에 흐르는 세력이고*[골3:5, 롬7:22-23]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런 자들을 위한 구원이 되었다. *[골1:21, 롬5:6-10]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력(履歷)을 가지고 있다. 원수되었던 세력과의 결별은 성령의 도움을 입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마9:17]

하나님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준비한 곳에 보존된다. ☞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수 당시, 기득 종교 세력은 예수의 몸값을 은 삼십으로 정하였다. *[마26:15]

대속의 은혜를 ‘빛의 탕감’으로 여길 때, 그 빛은 값을 수 없는 액수인 ‘일만 달란트’이다. *[마태18:24-]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 *[딤후2:6]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러한 댓가가 지불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벧전2:9]

이 신분을 얻은 자는 종이라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유인이고,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다윗의 권고는 구습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엡4:22-25] 구체적인 삶에 대한 설명이다.

원욕*[약1:15] 위에 세워진 인간 관계는 주종 관계나 원수 관계로 진화한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죄의 삯을 인하여 대속하신 예수께 속한 자들은 십자가에서 이전의 모든 인간 관계가 끊어 나고, 부활과 함께 새로운 인간 관계가 형성된다. ☞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바 되었느니라

욕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다름 같이,*[갈5:16-23]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이다.

우상이 사람의 탐욕에서 만들어지는*[골3:5] ‘허구’일쎄데,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에 관한 지식은 더없이 공허하고 영혼을 더럽히는 부패한 지식일 수밖에 없다. *[롬 1:23]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는 그 마음에 우상이 숨쉬고 있고,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자는 가증한 악취를 뿜는 쓰레기통과 같은 존재이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지식은 우상 숭배자에게 필요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가 있을 수 없으나*[고전12:2]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7절] 이 허구의 세력이 구습에 익숙한 어리고 약한 양심을 더럽힌다.

우상이 아무 것도 아니면, 우상의 제물도 아무 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도 아무 것도 아니다.*[4절]

우상의 제물이 식탁에 놓여지면 음식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고전10:25,26]

그러나 먹을 수 있는 이 자유함과 권리가 형제로 실족케 한다면 이 자유함과 권리

를 아는 지식을 따라간 결과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자의 결과가 다르지 않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으로 우쭐대는 자는 누구인가?
우상의 전(殿)에 앉아 식물을 먹는 자가 자신의 자유함으로 형제를 실족케 하는 자
처럼, *[10-12절] 복음의 지식과 믿음을 과시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자
아니겠는가?

육체의 일, 육신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5:22-23] ✞

절제/ 고전9:25-27/ 20240124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자 유자와 사도인 바울이 누린 자유와 사도로서의 삶의 규모와 방향은 그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었다.

바울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복음
안에 있는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받은 자이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지 사람의 의지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 열매는 육체의 것이고 썩을 것이다.

사랑과 함께 ‘절제’는 바울이 누린 하나님의 보상이고 바울이 얻은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입김은 바울로 하여금 항방 없게 아니하고, 허공을 가르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하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였다.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절제의 구체적인 동작이다.

만일 절제하지 못한다면, 육체의 요구가 강하여서가 아니라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한 분별을 얻지 못한 결과이다.

바울이 절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분별이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라. ☞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20,21절]

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베풀고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셨다.

광야 40년 동안 나타난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패역과 암시된 그리스도의 세계이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다수의 일은 악을 즐겨한 것, 우상 숭배와 간음과 주를 시험하는 일과 원망하는 일이고 결국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바라신다.

먼저 “선 줄로 생각지 말라”는 것, 스스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극복한 자로 여기지 말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제시한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일이다. 곧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일이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 믿음의 세계로 인도되지 못하고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기념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모양과 형식에 치우친 종교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귀신의 잔은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의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젖밥에 관심이 있는 자의 잔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축복의 잔을 드는 일이다. ☞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고전11장/ 2024013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절]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말은 바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머리된 삶을 살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지혜로 사는 자라면,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자이고 교회가 바울을 본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형상이다. *[창1:27, 엡1:23]

하나님의 교회는 주께서 명하신 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속한 ‘한 몸’임을 증거한다. *[고전10:16-17]

주의 십자가 세례로 ‘한 몸’이 되었고, 주의 만찬으로 ‘한 몸’에 참여한다.

주의 십자가로 거룩함을 얻었고,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거룩함을 누린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자신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임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

☞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
느니라

신령(神靈)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의 지혜가
아닌 것이다.

예수를 주(主)시라 부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은 성령의 일하심의 열매이다.
만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지혜로, 예수를 주라 부른다면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대
로 끌려가는 이방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도로 새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의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진 것처
럼, 사람의 영과 가르침을 좇는 일은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는 행위일뿐 아니라 스
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질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 *[롬1:22]

예수를 주시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은 세상의 속한 것으로 얻을 수 없고 사람의 지혜
로 헤아릴 수 없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고전2:13]

하나님의 영에 속하는 유일한 통로는 십자가이다. ☞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찌라도 사랑이 없
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간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났다.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패역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패역한 인
생을 위한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요5:42, 요일4:7]

성경에 기록된 모든 비밀과 예언과 지식과 능력과 믿음은 이 사랑을 그려내는 퍼
즐이다.

그리고 이 퍼즐은 각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다. *[고전12:11]

사랑이 담겨 있지 못한 퍼즐 조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낼 수 없다.

이 사랑을 담지 못한 퍼즐 조각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
을 입는 일이다. *[계2:4]

사랑을 입은 자*[엡5:1]는 그 사랑이 오래 참을 수 있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고 성내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한다.

만일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사랑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이다. *[갈5:6, 딤후
전1:5, 롬5:5] ㅇ

고린도전서 14장에서의 방언은 사람의 뇌의 통제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직접 혀를 움직이게 한 언어이다.

이 언어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람에게는 알아 듣지 못하는 비밀이다.

방언도 예언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허락하신 은사인데, 통역이 없으면 알아 들을 수 없는 방언은 교회 안에 왜 필요한가?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언어이다.
방언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므로 방언하는 자는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고 바울은 권고한다.

비록 방언의 은사를 많이 나타낸 바울이지만, 일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다섯 마디 예언이 유익하다고 지적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나타난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도의 각 은사는 교회의 권위 아래 함께한다. *[막10:42-44]

선지자가 누구이고 신령한 자가 누구인가?

먼저 교회 앞에 잠잠할 줄 아는 자가 아니겠는가? *[28, 30, 34절]

잠잠할 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지적 소유권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주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교회의 영광과 기쁨에 함께하라고 주신 것이다. *[고후1:24] ☞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고전15장/ 20240214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사람의 부활과 몸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모든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이다. *[20절, 요12:24, 32]

이 부활은 첫사람 아담의 형질(形質)을 다시 입는 부활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과 신분을 갖는 부활이다. *[고후5:17]

후패한 영역에서 쇠함 없는 영역으로의 도약이고 구원의 실현이다. *[고후4:16, 벤전 1:3]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함께하며 부활이 없으면 예수도 구원도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53:5]

그리스도의 찢림과 죽음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인한 결과로 여겨진 마음에 예수의 세계는 세력을 얻는다. *[행2:37, 갈2:20]

온전한 회개가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사24:1-3, 사25:6-8]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렘17:9]

심히 부패한 것, 욕된 것, 그리고 연약한 육의 몸을 말씀대로 부패하고 욕된 것으로 여기는 심령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부활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벗을 썩을 몸과 썩은 세상에서 썩지 않을 것을 누리고 나타내는 삶을 산다. ☞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찌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강한 경고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번째 편지의 끝을 정리하며 문안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글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은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으로 여기는 초대 교회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사실 이 경고의 말씀은 이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초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흐르는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누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를 향한 사랑은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반응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벧전1:8-9]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

이 믿음은 예수를 보고 믿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엡1:13] 구원이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힘이 있다.

구원은 하나님이 힘이 된 자들의 세계이고 그 힘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나타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ㄹ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 없는 위로는 없다.

바울은 당시 살 소망이 끊어진 환난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

그리스도의 세계를 누리고 나타내는 삶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삶이다. *[골1:24-29]

고난 없는 신앙은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으로 흘러간다.

교회의 외부 세력으로 인한 물리적인 고난과 교회 안의 신앙에 관한 고난*[고후4:8]은 항상 있는 것이고 이 고난들은 준비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교회 안의 고난은 주식(主食)이다.
‘고난’을 밥으로 먹으면 ‘위로’라는 에너지를 얻는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시3:1]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속의 이 다윗의 탄식은 결국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다.

‘겨울’이라는 환난으로 양상한 속 살이 드러난 나무가 거기에서 또 봄의 소망을 품으며 자라는 것처럼, 성도의 고난은 잡다한 것으로 가려진 인생의 속살을 드러내며 생명의 시작인 하나님께로 성도들을 인도한다.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창35:3] ㅎ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성도와 성도의 교류는 궁극적으로 성도의 기쁨을 돕는 일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사도일지라도 성도의 믿음은 주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단번에 주신 믿음*[유1:3]으로 얻은 성도의 거룩한 신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견고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에 주신 열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분을 가진 자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세력이 있다. 할례가 혼장이 된 유대인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갈2:4]가 그렇고,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요삼1:9]가 그렇고, 오늘날 규모와 숫자에 집착하여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복음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폐단의 모습은 교회 안에 사람의 공로와 자량이 세워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땅히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기쁨과 자량이 있어야 할 곳에 사람의 공로가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멸하신다. *[고전3:17, 막13:14]

교회는 ‘우월한 자’의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 육적 세력을 제어하는 자,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빌3:3] &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향**나무는 찌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

이 말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아2:2]와 같이, 십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문장이다.

찌르고 죽이는 자의 패역과 죽음 당한 예수가 만나 ‘대속’이 성취 된 곳, 십자가는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새겨진 구원의 표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갈2:20]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는 삶을 산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 드러난 마음에 묻혀진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4:10]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함께한다. ☎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6절]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호칭이고, 새 언약의 일꾼 된 마음은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심비(心碑)에 기록된 이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글이다.

이곳에 그리스도와 의 교제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돌비에 기록되었던 이전 언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으나 정죄의 직분이었고, 살려 주는 영의 의의 직분인 새 언약의 일꾼은 길이 있을 영광 가운데 있는 신분이다.

모세는 수건으로 없어질 꺼풀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게 가렸으나*[출34:29-35]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은 벗어졌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자의 영광과 거룩함을 입은 자의 영광이 새 언약의 일꾼과 함께한다. *[히2:11]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창24:65] 부부가 된 후에는 면박을 벗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영광과 자유를 누린다. ☺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
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복음이다. *^[딤후1:11]
이 빛이 비취진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 *^[요1:14]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볼
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3]

사람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한다. *^[롬3:23]
예수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를 믿는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롬8:30]

그러나 이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세력, 복음을 가리는 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복음
을 빙자하여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다. *^[요12:43, 롬1:23]

보배로운 복음이 질그릇에 담겨 있다.
보배를 담은 지혜와 능력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다.
비천한 곳에 있는 자를 기념 *^[시136:23]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어진 그릇에 보배
가 담긴다. *^[렐18:4] ☞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이 둘을 잇는 홍색실은 문둥병자가 정결함을 입을 때 드리는 제물이다. * [레14:4]

이 상징적인 제물을 통하여 지존하신 하나님과 비천한 인생의 경이로운 화목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다.

땅에 속한 질그릇에 하늘에 속한 보배를 담은 중첩된 형상도 그러하다.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이 배타적인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가 기기묘묘한 예수의 사역, 곧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 [엡2:15-19]

이 지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낳았다.

이 피조물은 이미 후패한 겉사람과 날로 새로운 속사람으로 조합된 존재이다. 썩어질 겉사람에 남아 있는 하나님에 대한 패역의 흔적은 속사람의 생명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다.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은 보배를 보배로 여기고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이다. ☞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하
나님께서 준비한 구원의 세계는, 이 땅에 있는 무너질 장막 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덧입혀지는 일이다.

무너질 장막은 후패한 겉사람의 세계이다. *[고후4:16]

이전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세워질 수 있다. *[17절]

이전 것은 죽을 것이고 새 것은 생명이다. *[4절]

무너지고 벗겨질 장막에서 짐 진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생명의 세력에 덮혀지고자 함이다.

집이 무너져도 더 좋은 집이 준비되어 있으면, 무너지는 집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수 없다.

‘더 좋은 집’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열매이다.

무너질 것을 무너질 것으로 여기고 영원한 생명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는 삶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상급의 열매로 맺혀진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11:16] 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후6:1-2/ 20240320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 직책을 가진 자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다. *[고후5:18-20]

화목하게 된 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들어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신 구원*[사49:8]이고, 이 ‘은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섬겨주신 모든 일의 압축된 언어이다.

지금은 성취되고 선포된 은혜와 구원의 날이다.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은혜와 구원의 날을 누리지 못한다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골1:6] 육신의 행위에 머문 결과이다. *[롬11:6]

은혜로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일은 육신의 지혜와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의 몫이다. ㄴ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요1:9-17/ 20240324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시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나타난다.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구체적이고 압축된 형상이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치
아니하였다.

영접할 수 없는 인생의 저주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라는 옷
을 입고 대속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이 대속의 은혜는 그 이름이 믿어진 자에게 유효하다.

그 이름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이시다. *[마1:21, 단9:24]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모세의 율법이 믿어진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가 덧입혀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4:16] ☞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
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행하시는 곳, 오늘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정한 것, 믿지 않는 자, 불의, 어두움, 벨리알과 구별된 삶의 방향을 갖는다.

부정한 어두움의 세력이 만들어 낸 ‘우상’이 있다.

우상 숭배는 탐심을 근거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들어 내는 종교 활동이다.

*[골3:5]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우상은 만들어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있는’ 존재이지 ‘만들어진’ 존재일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 속에 우상이 만들어진다. *[사44:15]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

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그러나 사람의 정욕*[요일2:16]은 이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재물과 함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든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일5:21] ☞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고후7:9-13/ 20240331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견고하고 뚜렷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과정이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근심은 눈이 어둡고 하나님 없

는 이방인의 근심이다. *[마6:25-33, 막10:22]

바울은 자신의 중심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 큰 근심의 탄식이 있었고, *[롬7:24]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주께 간절히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 큰 위로를 얻었다. *[고후 12:9]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을 입는 일*[살전4:3]인데, 사람에게 거룩함을 얻는 지혜와 능력이 없다.

말씀 속에서 이러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형성되는 근심이 아니겠는가?

말씀 속의 자기 발견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고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의 준비하신 세계를 누리게 한다. *[눅14:25-35]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38:4,7] 卍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고후8:8-9/ 20240403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의 부요(富饒)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다. *[고후4:18]

예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한 위치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셨다.

천국의 부요함을 담은 겨자씨 한 알이 밭에 심기어지면, 작고 작은 겨자씨는 큰 나무로 자라 새들이 와서 깃드는 부요한 공간이 된다. *[마13:31-32]

예수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베푸신 믿음의 지식과 사랑의 풍성함은 물질의 연보(선물)를 통하여도 나타나 은혜의 풍요를 누리게 하였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의 선물이 되셨다.

이 선물의 부요함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만족이고 유일한 자랑이다. *[고전1:30-31]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예수의 부요를 누리며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산다. *[빌2:5-8] &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고후10:3-7/ 20240407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데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찢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성도의 분별된 삶은 비록 육신 안에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데 있다.

이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력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권세이다. *[엡6:12]

그리고 이 세력과 싸우는 병기도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강력한 하나님의 세력은 언약, 곧 말씀이다.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으로 무너지고, 거센 풍랑이 “잠잠하라”는 말씀으로 잔잔하여지는 일은 상상 밖의 물리적인 현상을 통하여 이미 굳어 견고한 생각의 성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강력이다.

다말, 라합, 롯은 하늘에 속한 강력한 분별의 힘이 그들을 이끌어 육신에 머물게 하는 견고한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처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육에 속한 생각의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㉞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고후11:10-15/ 20240410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꾀술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이고 궤홀의 역군이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이고 의의 일군으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들,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자들은 자신의 행한 것들을 자랑하고 나타난 것들을 자랑한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곧 자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이다. *[렐9:23-24]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의 일군, 수고, 고난 등 육신을 통하여 나타난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바울에게 어리석은 자랑이다.

그러나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을 인하여 부득불 고한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연약함이다.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는 바울의 치명적인 연약함이다. *[고후12:7]

그러나 이 연약함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강함을 누리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그리스도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궤홀의 역군은 이 은혜를 자신의 육체를 세우는 기회로 삼아 자신의 영적 우월을 자랑한다.

그리고 온갖 신령한 것으로 포장된 모습으로 교회를 주관하고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고 자유한 자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갈4:29, 2:4] ☞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
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칠십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삿9:5]
이 왕의 교만은 '가시나무'로 비유된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삿9:15]

이 가시나무는 자신이 자신의 정체를 모른다.
가시나무의 그늘이 썩터가 될 수 없다.
가시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을 찌르는 일이다.

사단은 모든 것 위에 자신의 보좌를 두려는 세력이고, *[사14:12-15] 깨닫지 못한 것이 없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이다. *[겔28:2-5]
가시와 사단의 세력은 모든 인생의 육체를 통하여 나타난다. *[창3:5,18]

세제 하늘에까지 이끌려 간 바울에게 깊고 깊어 헤어날 수 없는 웅덩이와 같은 사단의 세력이 함께한다.
그러나 바울이 약하여 감당할 수 없는 사단의 세력은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고 온전한 세력에 속하게 하였다.

자신의 무익함을 아는 종에게 유익한 주인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함께한다. *[눅 17:1-10] ㅇ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바울의 물음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가 아니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ye be in the faith?)”이다.

자신이 택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말씀이 믿어진 믿음은 다르다. 전자는 수동적 현상이고 후자는 피동적 믿음이다.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사52:3]"는 말씀은 이미 결정된, 인위적인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이 결정된 사실이 믿어진 자가 믿음에 있는 자이다.

이렇게 믿음에 있는 자의 구원은 인위적인 지혜와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진 구원의 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또 다른 세력이 함께하였다면 그 구원은 다른 복음에 의한 구원이다. *[갈1:6]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요15:4]과 같이 ‘믿음에 있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의미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붙잡힌바 된 것'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산다. *[벧3:12]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믿음에 있는 자이다.

주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주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 있는 자는 주의 믿음을 받은 자이다. *[약2:1]

진리와 믿음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롬10:17]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형성된 믿음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믿는 믿음이다.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이라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응답하셨다. * [눅17:5-6]

믿음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과 예수의 인식이 충돌하였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믿음이 있긴 있지만 좀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다고 말씀하신다.

만일 제자들이 믿음에 서려면 예수의 말씀이 믿어져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

그리스도인의 자랑과 힘은 '그리스도'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

우리를 비천한데서 기념하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시편 136:23-26]



<https://blog.naver.com/shindk55>